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ICT 확산사업
2차 예비사업자 사전컨설팅

축산 분야 스마트 팜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스마트 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사 및 축산시설에 접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축사환경과 가축을 관리 할 수 있는 첨단농장을 말한다. 축사 온·습도, 약취 등 자동 조절, 가축의 운동량·체온 등 생체 정보 측정을 통한 질병 조기감지, 수태 적기 예측 및 적정량의 사료와 물도 자동으로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축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축산 분야 ICT 확산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동 환경제어기(온·습도, 약취 등), 개체 정보(질병 등) 관리, 자동급이기, 착유기, CCTV 등 ICT 기술을 사용한 축사관리 장비를 지원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790개 축산농가에 ICT 장비 보급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178개 농가를 1차 선정해 ICT 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차 모집을 통해 예비 신청한 384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6월부터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개별 예비사업자들의 축사 여건을 진단하고 ICT 장비 유형을 추천하는 한편 사공업체 정보 제공, 계약·행정절차 및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사전 컨설팅 기간은 약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ICT 장비를 도입할 본 사업자를 선정한다. 본 사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분야별 협의체회의
현장과의 연구진단 소통에 첫 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분야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과의 소통 기반 강화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분야별 협의체 회의를 지난 5월 31일 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내·외부 AI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가 신설된 이후 처음 구성해 추진된 행사로 현장과의 소통 강화의 첫 발을 내딛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조류인플루엔자 분야별 협의체는 매년 상·하반기 모임으로 정례화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이날 회의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연구개발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진단과에서는 최근 마련된 AI 연구·진단 중장기 발전 계획(2018~2027)을 소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2019년 수행 연구추진 신규과제로 AI 바이러스 첨단 진단 시스템 구축, 대륙간 재조합 AI 바이러스 유전적 다양성 분석 및 특성 연구 등을 발굴하고 세부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병원성 시유입경로 추적연구
러 국립해양생물과학센터와 MOU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우리나라와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원인 야생 철새의 이동 경로 추적 연구를 위해 5월 16일 러시아 국립해양생물과학센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립해양생물과학센터(National Scientific Center of Marine Biology): 러시아 학술원 극동분원(Far Easter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에 속한 기관으로서 극동지역의 물새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의 생태와 보존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양 기관은 양해각서에 따라서 공동으로 2년간('18~'19) 러시아 한카 호에서 5~9월 사이에 오리류 등 주요 철새종을 포획하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이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다.

* 한카 호: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헤이룽강성 사이에 위치한 호수로 (면적 4,190 km²), 호수 주변은 동북아시아와 극동지역 주요 철새도래지이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대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러시아 국립해양생물과학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극동지역 겨울 철새의 남하시기와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 및 역학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0회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초·중등 부문 최우수

고등·일반 부문 최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제10회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6월 11일 식약처에서 개최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 포스터 공모전은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 시상은 초·중등부와 고등·일반부에서 각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하고, 공모전에 가장 많이 참여한 1개 학교에게 최다참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 수상자 : 초·중등부 박신양(대구 황금중 2학년), 고등·일반부 신경음, 최다참가상은 대구남산초등학교

이번 공모전은 지난 3~4월에 응모를 통해서 '니트럼·당류 줄이기, 고열량·저영양식품 섭취줄이기' 등 주제로 1,320점의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창의성, 주제 적합성, 확산 기능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국민 참여 심사를 거쳐 선정했고, 수상작들은 시상식장에서 전시회를 가진 이후에 지역축제·행사 및 홍보관·체험관 등을 통해 전국 순회 전시하고, 급식소·보건소 등에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수제 햄·소시지 경연대회
농업기술박람회 부대행사로 추진

직접 만든 소시지, 햄 등 수제 육제품을 만드는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8년 농업기술박람회 기간 중 부대행사로 7월 21일 수제 햄·소시지 경연대회를 마련한다.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소규모 식육가공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종사자와 육제품 제조 체험 농가는 물론, 일반인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전자우편(smakang77@korea.kr)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었다.

심사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풍미, 품질 등을 기준으로 국내 육가공 전문가들이 7월 21일 시식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상과 국립축산과학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강선문 농업연구사는 “최근 소규모 육가공 업체와 육제품 제조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실력을 평가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직원 나눔의 날 개최
명사초청 특강...직원포상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 4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나눔의 날 행사를 가졌다. 또한 건명원 최진석 원장을 초청해 특강도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직원 포상이 있었다.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에게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으며, 김경필 선임연구위원과 윤종렬 부연구위원, 김진년 연구원에게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나눔의 날을 맞아 김창길 원장은 지난 1년간의 연구원 변화에 대해 직원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알리며 다함께 비전을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김 원장은 미국 실리컨밸리의 대표적인 투자자로 손꼽히는 피터 틸의 Zero to One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기존의 것을 카피하는 수평적 확장이 아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수직적 진보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구원 직원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미래를 이끌어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수준향상 앞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업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계자들의 식품안전 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8년 식품안전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HACCP 인증원의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은 올해 4년차를 맞이했으며, 올해 70회에 걸쳐 식품업체 품질관리(QC) 담당자 및 종사자, 지자체·경찰·식품안전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강사 등 3,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유형은 대상에 따라 집합과정,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과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특히 교육센터에 내방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 거점 또는 식품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과정을 지난해 대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강사진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였다.

장기윤 원장은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의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
식육산업 역량 강화·인재육성**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월 30일, 31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과 충북 청원군 팜스토리 한농에서 제8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축산 관련 학과 대학(원)생들의 식육산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한편, 축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건국대학교 원준필·전주영 학생, 이소민·박병규 학생이 각각 소, 돼지 부문에서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2점)은 강원대학교 강채은·한승주 학생과 한경대학교 유은지·조은한 학생이 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 총 22점이 시상됐다.

오는 7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국제 식육평가대회인 호주 ICMJ대회 참가 자격은 소 부문 건국대 전주영 학생, 경상대 김진선 학생, 돼지 부문 강원대 정수연 학생, 전북대 문경채 학생에게 주어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백종호 원장은 “이 대회가 축산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축산 미래 발전을 위한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